

CEO 동선

녹색철도대학원 현판식 및 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8일 본사 교육장에서 존 엔디컷 우송대학교 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철도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내 전문대학원인 [녹색철도대학원] 현판식을 가졌다. 또한 현판식 후 교육생 및 공단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통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단' 발대식 가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5일 대전시 동구 원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상인회관에서 영호철 시장과 쪽방마을정비사업단, 복지만두레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공단은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나눔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복지재단 등과 함께 동구 원동과 중구 정동, 삼성동에 있는 574개 쪽방 가운데 251명이 거주하는 241세대에 대해 16억원을 들여 보일러와 화장실, 도배, 장판 등 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장비사무소 등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8일 시설장비사무소, 품질인증센터, 철도종합시험선 구축예정지 등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로부터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3월 KR열린마당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5일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KR열린마당'을 개최하고, 우수직원 및 사업관리수행 우수성과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공단, 사내 「녹색철도대학원」 첫 입학식 가져

- 철도공학석사 맞춤형 교육 진행 -

공단은 지난 6일 교육주관기관인 우송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철도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내 전문대학원인 「녹색철도대학원」의 첫 입학식을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우송대학교 총장과 교수진 및 입학생 25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한편, 공단은 글로벌 철도전문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우송대학교와 사내 「녹색철도대학원」 개설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대학원은 공단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철도공학석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김광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공단과 철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고, 입학생 대표인 김찬식 영남대학교 학생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면학기회를 제공해 준 공단에 감사하며 신지식을 습득하여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철도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협약 체결

- '17년 완공,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여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구분화), 공항행정정책관(김기석),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오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이영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국토해양부 별양동 2층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의 위·수탁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공단은 이번 수탁 체결로 수탁사업관리비 약45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오병수 공단 부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철도건설의 전문성, 설계·시공, 차량구매 및 사업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내 최고의 철도건설 전문기관인 공단에 요청한 수탁사업에 대하여, 품질·안전 확보 및 무

재해 시공으로 '17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장 없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초 일류 수준의 철도건설로 국민들에게 철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의 협약 체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국토해양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건설본부 김흥도 기자>

